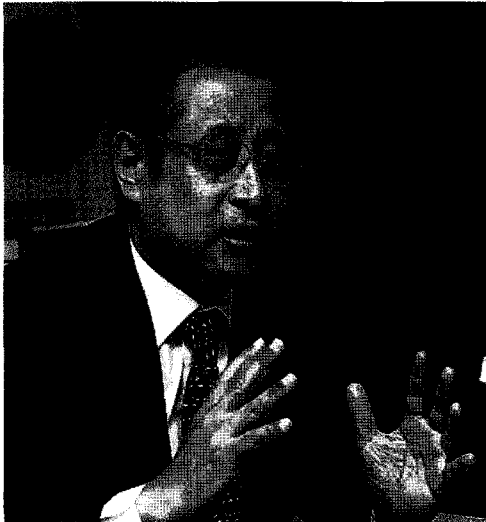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rchitecture



유 재 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미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경제학과
/ 행시 20회 / 총무처 / 재무부 재정금융심의관실 /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금융정책과장, 국고과장 / 국장,
정책조정국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 정책홍보관리 실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한나라당 정책실장

박찬정 :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재한 : 반갑습니다.

박 : 서로 다른 전문분야인 만큼 어렵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한편 흥미롭고 의미 있는 기회라 여기고 있습니다.

유 : 우리 공사나 제가 해 오던 일에 대한 것이라면 몰라도 건축/도시문화에 대한 얘기는 저로서는 솔직히 생경한 느낌입니다.

박 : 편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래도 마음 쓰이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럼 우선 수월하신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지요.
정책금융공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유 : 네, 우리 정책금융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 SOC 및 지역개발, 위기 시 시장안정판 역할 등 지속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시대와 사회는 전문화와 함께 열린사회, 통합화, 대중화를 도모하며, IT의 발전은 그 개방, 참여, 공유의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또한 위계적 사회 체계를 넘어 본질적이고 수평적인 평등과 협력, 소통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과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건축사들도 그를 책임 지고 관리 할 역할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제1의 건축 공동체인 본 협회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적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립니다.

도시화, 현대화와 함께 도시, 건축도 복합화, 거대화, 종합화 현상이 빈번해졌고, 개발 방식도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 분야의 중요성은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음에도 이 두 분야의 상호 이해나 교류가 미약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서로의 몇 가지 간략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금융의 최고경영인과의 짧은 접촉이 장차 보다 깊은 이해와 잦은 교류를 통해 국가 경제 및 사회 공익을 위한 큰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합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09. 10. 28. 출범한 신설 기관입니다.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정부전액 출자지요.

이를 위해 선진형 정책금융방식인 독일 KfW(재건은행)의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지원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 : 잘 요약해 말씀해 주셨는데, '온렌딩 대출'이란 어떤 것인가요?

유 :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입니다.

공사가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은 자신의 책임 하에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시장 친화적 선진금융기법으로, 중개금융기관이 지원 대상과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최고금리(금리Cap)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저리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되었습니지만, 온렌딩 대출제도는 독일 KW(재건은행)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당 공사는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 중입니다.



박 : 성과는 어느 정도 인지요?

유 : 현재 온렌딩 대출제도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실현하여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년 기준으로 당초 목표가 2.1조원이었는데, 1.1조원 초과하여 754개 기업에 3.2조원을 지원하였구요,

'11년에도 3.3조원 자금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 1/4분기 현재 1.6조원으로 분기목표 대비 초과 달성 중입니다.

앞으로는 최근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 및 비활성화 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중개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자금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개금융기관이 지속적 확대되어 '10년 초 8개에서 현재 15개로 늘었습니다. 지방은행 6개를 포함해서요.

박 : 초기 책임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참 자세하게 꿰고 계시는군요.

그럼, 공사가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유 : 네, 우리 공사는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 설립 이후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총 8.1조원을 공급하였고, 정부도 공사의 이러한 역할을 감안하여 작년 7월에 '녹색금융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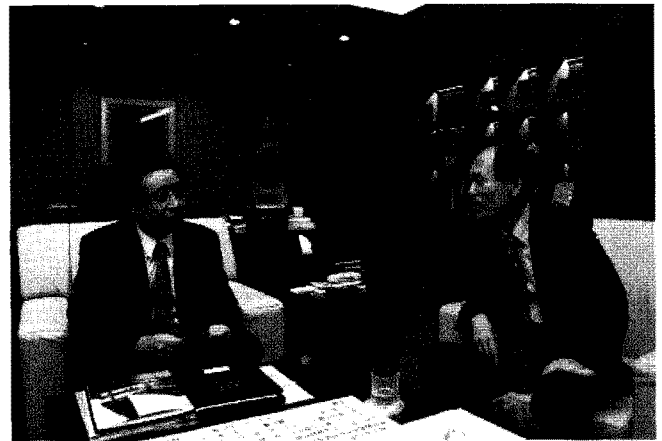
향후에도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특성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박 : 저희 건축문화산업 분야도 부가가치가 높은 '창의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적극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사의 업무를 이렇게라도 접해보니 한편으로 반갑고 희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장차 건축/도시 분야 또한 '녹색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저희 쪽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모델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 : 국가나 사회 성장 발전에 기여한다면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좋은 제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 : 2011년 '최고경영자 대상'을 2회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의 소감이 어떠셨는지?

유 : 최근 '사회책임경영'과 '상생경영' 부문에서 최고경영자 대상을 2차례 수상했던 경험은 올해 들어 가장 감회가 깊은 순간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의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박 : 새로 설립된 조직의 경영으로 수상하신 것이니 그 느낌이 어떠하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평소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말씀이나 좋아하시는 경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유 : 네, Jone A. Sheppard의 '배가 가장 안전한 때는 항구에 머물 때이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이유가 아니다.' 라는 문구 인데요.

강소(強少)공기업으로서의 공사는 온렌딩을 위시한 새로운 형태의 친시장적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개발하여 실행할 계획인데,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는 있으나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지원함에 따르는 '품위 있고 명예로운 리스크'를 감당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 경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 :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제 건축 관련 생각을 몇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혹시 건축 또는 도시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근본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험하시거나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 : 예전의 낮고 답답한 방, 불결한 화장실, 좁은 도로 등 유년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건축은 역시 건강이나 삶의 질과는 불가분의 관계구나하고 생각한 적은 있지요.

또한 근래 초·중등 학교 담장을 없애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시원하고 개방적인 느낌이 들었고, 최근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축시 세대별 설계나 조경시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질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의 편의나 질적 기반이 건축, 도시에서 오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박 :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지 그 느낌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 이른 것이겠습니다만, 노후생활을 보내시고 싶은 주거 형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 : 노후 생활을 위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 습니다만, 노약자들에게도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무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가끔씩이라도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공기나 물, 수목 등이 건강한 소위 친환경적인 주거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도시이든, 지방에서든...

요즘은 최소 70대가 되어야 노인이라고 한데 그 때에는 엄청난 기술이나 물질문명의 발달로 아마도 기술적인 서비스나 편리함은 만족할 만한 정도가 될 것 같고, 단지 환경의 질이나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데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요.

박 : 단순한 말씀 같으나 저희들이 기대하고 고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 : 그렇습니까?

박 : 그럼,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자녀들에게 추천하고픈 주거나 건축이 있으신지요?

유 : 일반적인 도시민으로서 어떤 집이든 자녀들 몫의 집이 있었으면 하는 바 램은 어느 부모나 가지는 희망이겠지요.

솔직히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단축'이라 할 만큼의 시대를 살아 왔고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가끔씩 온 가족이 여 유로움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집이 퇴근 후 잠만 자거나 단순한 소유재산이라는 그 런 집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도 어울리는 여유로움도 함께 즐길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박 : 그 분야를 다룬다는 전문인들로서 책임감이 더 해집니다.

평소 건축, 도시의 어떤 면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유 : 공사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지역개발 금융지원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업무상 건축보다는 도시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물류 및 관광단지 조성, 도시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요.

최근 도시개발 계획의 특징이 산업단지라도 이전과 달리 산업과 주거가 혼합된 첨단복합단지로 개발된다는 점인데, 이러한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각 구역 간 유기적인 조화를 고려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박 : 앞으로 건축/도시 분야, 에너지나 환경 분야 등에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요 시 협의나 제안 의사는 있으신지요?



유 : 오늘날 건축 및 도시 프로젝트가 대형화되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금융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도시계획안 임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는 금융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경 우도 있지요.

따라서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들도 금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 으며, 반대로 금융인들도 건축 및 도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건축/도시 분야에 서의 제안이 더 많고 효율적이겠지요.

박 :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건축을 단순히 기술적 종합을 넘어 고유한 창 작, 창의 행위로 보시는 것이지요?

유 : 그렇지요. 건축은 기술이 수반된 창작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건축물이 들어설 토지에 적합한 수많은 가능성 중 최상의 안을 도출해 내는 창작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대나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 학 기술이 효율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은 창작과 기술이 조화 되고 종합된 문화적 소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 : 그 창작인에게 사회적 명예나 존중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창작 유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건축문화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해 주십시오.

유 : 솔직히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비전문가로서 말 씀드리기 어렵네요.

설계자를 준공식에 초청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던 언론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간접적이거나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 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선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앞으로도 건성으로 넘어 갔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짧고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접촉도 다방면으로 노력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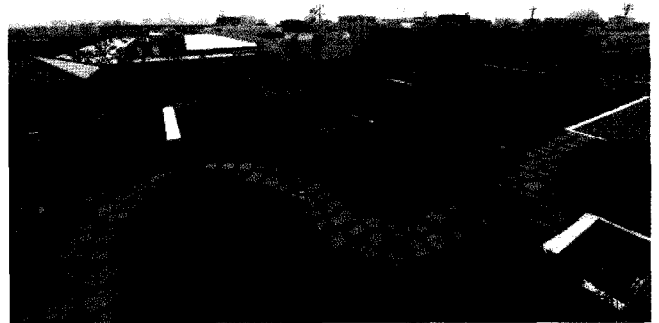
사회나 남이 알아주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 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이 먼저가 아 닌가 합니다.

그래도 문화가나 화가, 음악가 등 여러 창작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점차 높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정직하고, 책임 있는 금융'이란 기치 아래,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경영 이념을 가진 유재한 사장님과과의 면담은 사전 인터뷰 수용에도 불구하고 바쁜 업무로 인해 쉬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많은 비가 뿌리던 7월의 주초 오후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짧지만 의미 있는 소통의 기회와 진솔한 생각을 나누게 되었다. 긴(?) 경력에도 나타나 있듯이 정부 공직에 들어 온 후, 재경부의 여러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영책임을 맡기까지 자금 및 국고 관리,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등 그야말로 최고의 재무, 금융통임을 알 수 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출입구 관리서부터 사장실에 이르기까지 관계 직원 모두의 빈틈없는 안내와 따뜻하고 정중한 자세, 깔끔하면서 잘 정리된 업무 공간, 금융 업무 시스템 등과 함께 현대적인 이미지와 스마트한 인상을 준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 보다 깊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는 못 하였지만, 상호 소통의 계기나 기회가 적었던 만큼 나름의 큰 보람은 있었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은 없다. 도심 속의 휴식 공간 확보,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한 옥상 정원화 사업 결과도 보다 나은 건축·도시 공간을 위한 하나의 실천 사례로서 반갑다. 앞으로 건축사 업무 분야와 정책금융분야와의 보다 넓고 깊은 상생 관계를 기대함은 과한 희망일까?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박: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리 이해해 주시니 반갑네요. 주변 분들께도 그런 취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건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좋은 건축'이란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미가 갖추어진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탄소배출 등이 국내, 외의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녹색선도기관인 공사 입장에서 '친환경 건축'은 좋은 건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설계자·시공자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좋은 건축물과 도시를 만드려는 의지나 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쉬이 포기하거나 노력의 강도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본다는 의지를 내셔야 합니다.

박: 좋은 건축도 건축이지만, 그것을 만들어 갈 기본을 강조해 주시는군요. 꼭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나 정부, 그리고 건축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 어디나 그렇겠지만, 각자 많은 바 소임을 잘 이해하여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도시 분야는 대표적인 융·복합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회화나 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당 공사도 앞으로 지역개발 지원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과정에서 건축 관계자분들과 서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의 노력과 업적을 쌓으셨지만, 앞으로의 건축/도시의 문제를 바라볼 때 건축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욱 큰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박: 정말 귀한 시간과 말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